

부직포, 중국 진출 청신호

진출방안 적극 모색 ... 한국산 수요 많아 유망

부직포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직포공업협동조합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직포업계는 최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중국 국제부직포 및 공업용포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중국 직수출 및 합작생산 가능성을 타진하고 중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중국전시회에는 한국물산·고합상사·금평산업·내양산업·별표수세미·신원헬트공업·란토르코리아 등 7개기업이 조합공동관 형태로, 제텍스·호산시스템·한일·전망산업 등 4개기업은 개별 부스로 직접 참가해 중국 진출을 모색했다.

부직포조합은 이번 전시회 기간중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중국내 부직포 수요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반면 공급상의 애로 발생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수입 수요가 높아 국내기업들의 수출 확대 전망이 매우 밝다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중국내 부직포 생산기업수는 약 650개사로 이중 80%에 해당하는 기업이 패딩류 등 의류부속소재 위주 생산에 치우치고 있는데다 시설낙후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공급애로가 발생, 연간 2억5000만달러의 부직포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현지 판매거점 확보를 통해 고급제품보다 저가제품 위주로 직수출에 나서 점진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부직포시장은 오는 2000년까지 중국의 의류 수출량이 연간 50억장에 달해 이에 필요한 고급 라이닝은 약 4억5000만m²에 이를 전망이다.

2000년경에 근로자 보호의류용 직물, 방염직물, 인조가죽의 연간 예상 수요량이 각각 4만톤, 2억, 3억5000만m²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포장재용 섬유 소비량은 5만1800톤에 달하나 오는 95년까지 7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타포린과 커버링 소재의 수요는 8500만m²로 대부분 면소재인 관계로 새로운 제품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필터용 소재의 소비량은 3000만m²이며, 오는 2000년까지 5000만~6000만m²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연성 소재의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다.

<화학저널 1994/6/27>